

독서문화 확산 · 평생교육 활성화 ‘맞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방송통신대, 업무협약 체결... 전자책 · 오디오북 공동 개발 등 추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전 국민 독서문화 확산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승수)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김종오)는 지난 2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책을 통한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승수 출판진흥원장과 김종오 방송통신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전 국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각각 추진해 온 독서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최근 성인 독서를 하학과 연령 · 소득 계층 간 독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독서를 통한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종합독서율은 38.5%, 연간 종합독서량은 2.4권으로 2023년보다 각각 4.5% 포인트와 1.5권 감소했다. 성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승수)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김종오)는 지난 2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책을 통한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른 독서 격차도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대의 독서율은 75.3%인 반면 60세 이상은 14.4%에 그쳤으며,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의 독서율은 56.1%였지만 200만원 이하 계층은 13.4%에 불과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인 독서율 50% 달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온라인 교

육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교육 콘텐츠와 전자책 · 오디오북 공동 개발 및 보급 △전국 지역 대학과 학습관을 활용한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출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대학교재와 학술저작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이용문화 조성 △디지털 독서 콘텐츠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남원 피오리움 글로벌 씬머 나이트

25일 · 8월 1일 개최... 이색 체험 프로그램 · 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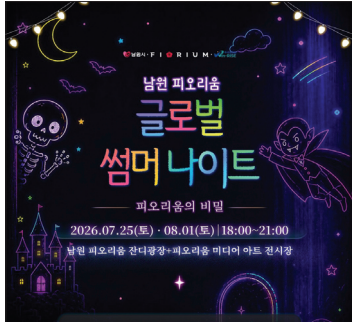
남원시는 오는 25일과 8월 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피오리움 달빛정원 및 미디어아트 전시관에서 피오리움 글로벌 씬머 나이트·피오리움의 비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와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최 · 주관하는 행사로, 피오리움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과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국적의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행사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글로벌 푸드트럭과 캠프존이 운영되며,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감성 포토존도 마련되고, 또한 다문화 레크리에이션과 K-POP 댄스 공연이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호리 분장 체험과 의상 대여를 비롯해 글로벌 스틱 만들기, 수혈팩 에이드 만들기 등 이색 콘텐츠를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피오리움 미디어아트 전시관에서는



미술공예와 다문화 캐릭터 연출을 더해 기존 전시와 차별화된 야간 콘텐츠를 선보이며, 피오리움만의 특별한 여름밤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피오리움을 대표하는 여름철 야간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미디어아트와 공연 · 체험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예술회관, 전통연희 공연 '자타공인 광대열전' 8월 14일 개최

부안예술회관은 전통연희 공연 '자타공인 광대열전'을 오는 8월 14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부안예술회관이 주관하며, 전통연희가 지닌 흥과 기예, 장단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공연은 버나, 죽방울, 양금 연주 등 다채로운 전통연희를 비롯해 화려한 LED 퍼포먼스(사자탈춤)를 접목해 최고의 시각적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관객들의 뜨거운 기량과 살아있는 판의 에너지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전통연희의 진정한 흥과 감동을 전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명 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을 선보이는 전통연희단 자타공인은 '자기나 남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전통 예술단체'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통연희의 가(歌) · 무(舞) · 악(樂) · 희(戲)가 모두 어우러진 종합예술을 현대적인 무대로 재해석해 활발한 공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전체관람가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립도서관, 인문학 여행 펼쳐진다

'국가유산을 품은 정읍, 이웃 · 세계 도시 매력 통해 생각 확장하는 인문학' 개최

정읍시립도서관이 정읍의 국가유산을 시작으로 이웃도시와 세계 도시의 역사 · 문화를 살펴보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을 품은 정읍, 이웃 · 세계 도시의 매력'을 통해 생각을 확장하는 인문학'을 주제로 마련됐다. 강연과 현장탐방을 통해 도시가 품은 역사와 문화,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시작했으며 오는 10월 14일까지 약 4개월간 이어진다.

첫 강연에서는 황미경 강사가 정읍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에 담긴 기록과 배움의 가치를 소개했다. 이어 김승수 전 전주지사가 특별한 상표 가치(브랜드)를 구축한 이웃도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경신원 도시와커뮤니티연구소 대표의 세계 도시가 지닌 다양한 매력을 통해 참여자들의 시야와 생각을 넓힐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강연 9회와 현장 탐방 2회, 참여형 후속모임 2회로 구성됐다. 특히 도시문화학자인 김시덕 박사를 초청해 도시마다 품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첫 번째 탐방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기록을 지켜낸 내장산 용굴암과 정읍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담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를 찾는다. 8월 23일에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간직한 국립중앙박물관을 탐방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익산시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형 특별전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하나로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어린이 특별전 '뚝딱 브릭스-땀굴땀굴'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강아지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체험형 기획전이다. 어린이를 비롯한 관람객들은 대형 블록을 직접 쌓고 조립하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미술관 1층은 다양한 블록으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다. 블록으로 조성한 산책로와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양방향(인터랙티브) 아트도 마련돼 색다른 예술 체험을 선사한다.

2층에서는 1층 전시와 연계한 현대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친근한 동물과 캐릭터를 소재로 한 회화와 인체 작품 등을 통해 어린이는 물론 가족 모두가 예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전시에는 문창환, 윤석문, 손연우, 백상욱, 엄수현, 임현채, 이주홍, 성혜림 등 작가 8명이 참여해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명남 익산예술의전당 관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며 "우리 지역 아이들이 예술을 놓치지 않고 친숙하게 접하며 창의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